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7. 1.(목) 12:00 (총 4매)		보도시점	즉시	
담당부서	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허택산 사무관 오영숙	전화번호	064-727-0367

이번 주말 제주도 첫 장맛비

- 3일 낮, 4일 새벽~오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집중
 - 제주도 50~100mm(많은 곳 산지 최대 150mm 이상)
 - 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~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



[7월 3일 낮 기압계 모식도]

-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전재목)은 3일(토) 오전~4일(토) 제주도와 전국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, 제주도는 50~100mm, 산지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30~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,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

[기압계 전망]

- 제주지방기상청은 현재(7월 1일 오전) 동중국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서쪽에서 접근해오는 저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어 3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최근 한반도 주변 상공에 머무르면서 정체전선의 북상을 저지하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로 북상해 3일 제주도와 전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

[강수 전망]

-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3일 오전(06~12시)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3일 오후(12~18시)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(강수 집중) 정체전선대가 북상하는 3일 낮과 저기압에 동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4일 새벽~오전에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,

- (강우 강도) 특히 고온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제주도에는 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~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지형영향이 더해지는 산지를 중심으로 4일까지 총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

< 예상 강수량 (3일~4일) >

- 제주도: 50~100mm (많은 곳 산지 150mm 이상)

- (유의사항) 소하천, 우수관 및 상하수도 관거와 저지대 등 상습 침수구역과 산지, 계곡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과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비가 시작되기 전부터는 접근과 작업을 자제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- 4일 이후에도 제주도는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
[강풍 전망]

- 3일 오후부터 제주도는 바람이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km(초속 20m)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며,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강한 바람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.

- 또한,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“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[풍랑 전망]

- 3일 제주도전해상(북부앞바다 제외)에는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2.0~4.0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,
- 대부분의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, 해상 선박교통 운항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당부했다.